



DACOM, 데이터통신 전용망 건설

현행 특정통신회선이 고속·고신뢰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한국데이터통신은 지난달 한국통신공사로부터 T1 회선 및 광선로를 제공받아 이에 광단국장치, 시분할장치 등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설치하여 서울 부산 등 16개 지역에 데이터통신 전용망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특정통신회선확장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올부터 오는 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게 될 이 계획은 우선 오는 10월까지 T1 회선을 이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역간의 망을 건설한다. 이후 지, 역망 건설을 위한 건물 및 광선로를 확보, 이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 전용망을 건설하게 된다.

망설치 대상 지역은 장비 설치와 운영, 영업센터로써 활용케 되는데 설치장소확보가 가능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였으며, 지역적 균형도 고려되었다.

이같은 전용망이 건설되면 1.544Mbps 회선과 56Kbps 및 9.6Kbps 이하 회선, 디지털 분기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이에따라 회선의 자동 절체 및 집중보전 체제를 통한

장애요인의 감소와 장애 복구 시간이 최소화되며, 중계구간 장애 발생시 자동우회 전송할 수 있어 회선의 고신뢰도를 유지케 된다.

그리고 고속회선 서비스와 디지털 분기 서비스로 새로운 형태의 회선 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특정통신회선 수요는 정보통신 이용 확대와 전산망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80년 이후 연간 약 30%씩 증가되어 왔고 수요자 욕구 또한 고속화, 고품질화, 다양화 되었다.

때문에 정보통신회선 서비스의 전문화 및 대고객서비스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아울러 현재 음성전송 위주의 전송시설을 데이터통신으로 사용하기엔 문제점이 있고, 한편으로 데이터전송 시설의 전문화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한편 세계적으로도 데이터통신 전용 전송망이 구축되는 추세인데 미국의 DDS(ATUT), 캐나다 데이터 루트 SVC, 영국의 킬로스트림 SVC·DATEL-MUX 5000 SVC, 일본의 디지털 전용회선 SVC, 호주의 DDS 및 DATEL 등이 그것이다.

전용망 확장 계획

구 분	건설 기간	건설 지역	비 고
제1단계	'88 - '88. 10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5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이외 4개지역 현 지사 사무실 이용 • T1회선 이용 • '88. 11 이전 서비스 개시
	'88. 11 - '89. 10	상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및 광선로 확보 • '89. 11 이전 서비스 개시
제2단계	'89. 11 - '90. 10	인천, 전주, 춘천, 마산, 제주(5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및 광선로 확보 • '90. 11 서비스 개시
제3단계	'90. 11 - '91. 12	수원, 원주, 구미, 울산, 순천, 청주(6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및 광선로 확보 • '92. 1 서비스 개시
합 계	'88 - '91. 12	16개 서비스 지역	건물신축 : 15개 지역

제철 엔지니어링, 남영산업 컴퓨터 사업 인수

남영산업의 컴퓨터 사업이 제철엔지니어링으로 넘어 갔다.

지난달 2월 29일 양사는 남영산업의 컴퓨터 사업을 제철엔지니어링이 인수하는 가계약을 체결했다.

남영산업은 지난해 10월 퍼킨엘머사를 인수한 컨커런트사의 제품을 도입·판매해 왔는데 이의 대리점권과 아울러 남영산업의 컴퓨터 사업부 직원 24명도 제철엔지니어링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사업개시 2년 7개월여만에 컴퓨터 사업부를 해체하게 된 남영산업은 85년 7월 내의 전문 생산업체로서 사업다변화 계획의 일환으로 당시 퍼킨엘머 국내 독점대리점권을 얻어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위주의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리점권의 양도가 남영산업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컨커런트사와 남영산업이 체결한 계약기간은 3년으로 아직 3개월 정도를 남겨 놓고 있다.

제철엔지니어링의 이번 컨커런트 대리점권 인수는 우선 모기업인 포항제철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물량을 자체

충당하고 나아가 대외 판매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포항제철은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연차적으로 생산라인이 건설되어 이중 10년 이상된 시설이 대부분인데 기간이 오래된 부문은 자동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 비용절감 등을 가져다 줄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에 자체적으로도 제어설비용으로 상당한 물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계산, 어차피 많은 양의 컴퓨터를 외부도입할 바에 외국의 마땅한 거래선을 확보, 자가 수요를 유리한 가격으로 소모시키는 한편 계속 사업으로 외부 판매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여진다.

제철엔지니어링은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주로 하여 퍼스컴 레벨의 하드웨어 판매도 겸해 왔다. 소프트웨어는 포항제철의 업무개발과 외부용역도 수주하고 있는데 이번 퍼킨엘머 도입으로 수퍼미니 하드웨어 공급 채널을 갖추게 되었다.

정보문화센터, 정보문화운동 기반 확립

연초 출범한 정보문화센터는 정보문화사업의 장기 목표를 정보사회에의 효과적 진입, 정보사회의 균형발전 유도, 정보산업의 지속적 발전 촉진 등에 두기로 하는 한편 올해는 정보문화운동 추진기반 확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구체적으로 정보문화협의회 및 정보문화사랑방 활동지원사업과 문화홍보사업, 시범전시사업 등을 추진케 된다.

정보문화협의회 및 정보문화사랑방 활동지원 사업으로

는 ▲정보문화협의회 결성 ▲운영위원회 및 국제협력분과위원회 활동지원 ▲지역별·직능별 정보문화사랑방 활동지원 등이었다.

그리고 문화홍보사업으로는 ▲TV 등 매체홍보 ▲VTR·슬라이드 제작 및 보급 ▲홍보용 소책자, 만화 제작 보급을 하며, 시범 전시사업으로 ▲컴퓨터실습실 및 정보통신관 설치 운영 ▲지방순회강연 및 시범 ▲농어촌 컴퓨터교실 설치 운영 ▲「정보문화의 달」행사를 실시한다. ■